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769호
- 나. 발 의 자 : 최영주 의원 외 9명
- 다. 제안일자 : 2021년 10월 14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
-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2019.1.)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마다 각각 다른 임원의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임원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출연기관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¹⁾
- 그러나 방침 작성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문화재단의 운영 조례 및 정관은 임원의 연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최영주 의원(강남3,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임원의 임면 등)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서울시 공기업담당관, '19.1.)

〈출연기관 표준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며, 0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후략)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후략)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나. 상위 법령 및 제규정 준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행안부가 작성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²⁾
- 한편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을 총괄하는 공기업담당관은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더불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를 통일하는 방침을 세웠음.

2)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p.8 <연임 및 해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함.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함.(이하 생략)

지방공기업법

-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및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여 「지방공기업법」은 임원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 방침 역시 상위법의 목적에 따라 출연기관의 연임 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2019.1.)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
- 상위법령의 제정 목적에 따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함.

담당 조사관	심 형 준 02-2180-8113
전문위원	강 현 02-2180-8114

의안번호
276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최영주 의원 외 9명	2021. 10. 1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 ○ 다만, 재단 운영조례의 연임규정을 3년으로 명시하는 조례 개정이 2019년 1월3일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개정을 보류해 왔음. ○ 이에,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서울문화재단의 연임 규정(제9조 2항)을 1년 단위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가능케 하고,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3.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의원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정관에만 명시된 3년 단위 연임 규정을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준형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 ○ '19.1.16. 출연기관 임원 연임 규정 개정 요청 (공기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잠정 보류 ○ '21.10.14.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영주 의원)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 별도 대응내용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김정은(☎2133-2552)
		담당	이광훈(☎2133-2555)